

# 16세기 프랑스 유마니즘과 CALVIN

金 文 相\*

## 차 례

### 序 言

- I. 암울한 국내사정
- II. CALVIN의 CONVERSIO SUBITO
- III. Affaire des Placards
- IV. Institutio religioni christianae

### 結 言

## 序 言

유마니즘과 종교개혁이란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이른바 르네상스가 잉태한 쌍생아 같은 감마져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맞남과 떨어짐이 르네상스기 16세기의 프랑스 문화사의 한면에 깊은 궤적을 남기고 있으며, 수많은 비극적인 문제가 양자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보통 Hauser나 Mann과 같은 역사가<sup>1)</sup>는 유마니즘과 종교개혁과의 상봉과 이반을 생각함에 있어서, 두가지 중요한 연대를 지적한다. 한가지는, 1534년으로서 이해의 10월 17-18일에 Affaire des Placards(격문사건)이 야기되어 있었다. 또 한가지는 1536년인데, 이해 3월에는 프랑스 Protestantisme(Calvinisme, Huguenot 교회)의 경전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 Calvin의 『크리스토크 교정(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

\* 佛語佛文學科 教授

1) Henri Hauser: Etudes sur la réformation française, Picard, 1909 p. 11sq.

Mergaret Mann: Erasme et les débuts de la réformation française, Champion, 1934, p. 2.

nae)』가 출판되었던 것이다. 이 1534년과 1536년 사이의 불과 2년의 세월이 1534년 이전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손에 손을 잡고 걸어 오던 유마니즘과 종교개혁과를 헤어지게 만드는 것과 같은 동인의 여러가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1536년 이후는 일견 유마니즘은 「후퇴」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그해 이후의 프랑스의 역사는 구교회와 신교회와의 쌍방의 광신주의와 국왕의 야망이 서로 얽히고 설힌 결과 야기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종교 전쟁(Huguenot 전쟁)의 피투성이와 같은 현실로 집철된다. 유마니즘은, 그 형제이던 종교 개혁으로 부터 버림을 받고, 그 어머니였다고 말할 수 있는 구교회(가톨릭 교회)로 부터 백안시 당하는 사태에 쫓기기에 이르러 말하자면 처참한 꼴로 변모된 감이 든다. 그러나 유마니즘은 사멸한 것도 아니었으며, 「패배」하고 「후퇴」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인간의 광란이 유마니즘이 내는 소리를 들(聞)을 귀(耳)를 갖지 아니하여 모든 것, 신교회의 정치적·무력적인 태도에 대하여서도, 구교회의 강압적인 방책에 대하여서도, Quid haec ad Christum? 라고 의치며, 똑 같은 크리스트의 이름에 의하여, 크리스트 교도가 서로 미워하고, 살상하는 愚를 지적하고 있는 유마니즘의 諫言을 마이동풍으로 아아 들은 척 하지도 않았을 뿐이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은 Erasmus<sup>2)</sup>와 Luther가 서로 만나 뜻을 같이 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이탈하여 헤어지는 바에서 보여 주었고, Rabelais와 Carvin, Castellion<sup>3)</sup>對 Carvin의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Henri IV세가 유혈에 지겨워하는 민심을 교묘히 수렴하여 왕위에 오르고, 「Nantes이 勅令(1598)을 발표하여, 크리스트교도 상호간의 대립의 어리석음을 일단 해소하기 이전에, 즉 광신 주의의 亂醉로 부터 깨어 나기에 앞서서, 광신·제멋대로의 시기에 참고 견디어 내는 유마니즘의 기록으로서, Michel del Montaigne(1533-1592)의 생애와 그 작품 『Essais』(1580-1588)는 특기할만 하다고 볼 수 있다.

## I. 암울한 국내 사정

1533년 12월 10일에 François I 세는 Lyon에서, 파리 최고 법원 앞으로 교황회칙 두통을 보내고, 동시에 이단자 추구와 종교 재판 제도의 설치를 명령하고 있다. 같은

2) Desiderius Erasmus Roterodanus(1469 · Bâle-1536) Humaniste hollandais auteur de Colloques et l'Eloge de la folie.

3) Castellion ou Chateillon(Sebastien). théologien et humaniste français(v. 1515-1563). 2<sup>é</sup> fit deux traductions de la Bible, l'une en français, l'autre en latin.

해 10월에 마르세이에서 이루어진 Clemens VII 교황과의 회견에서, 프랑스 국내의 이단자 박멸과 교환 조건으로 Milano 지방에 대한 야망을 용인받게 된다. 그때 교황과 맺은 밀약이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François I 세의 태도의 변화는 즉시 다음 1534년 1월 9일 파리대학 신학부에 의하여, 『왕립 교수단』이 성서의 자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비난 당하게 되는 것으로서 나타났으며, 추방중이던 Noël Bédá가 유페지이던 Mont-St-Michel로 부터 파리로 복귀하게 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1534년 봄에 Noël Bédá가 왕을 화나게 만든 불경한 서간을 적었던 것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Notre-Dame 사원에서, 고해 사죄 하였다는 기술이 『파리의 한 시민의 일기』<sup>4)</sup> 속에 나오는데 전후 사정은 분명치 못하다. 이무렵 Bédá와 Roussel과는 또 한차례 충돌한 일이 있고, François I 세의 도움으로 Roussel은 무난하였지만 Bédá는 한동안 체포되어 하옥 당하였다고도 전하여지기 때문에, 앞에 나온 『일기』 가운데 있는 사건은 이것과도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일기』 가운데의 일부(日附)는, 3월 6일(토)로 되어 있는데, 번역판의 교정자 V·L·Bourrilly에 따르면 6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기』 필자의 誤記여서 2월말의 최후의 토요일이겠거니 하고 있다.<sup>5)</sup> 동년 2월 19일부의 Erasmus의 서신에서는 Bédá가 대활약하고 있는 양상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의 정세는 François I 세의 정책 전환과 Bédá의 재분발 때문에 또다시 험악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1534년은 암울한 한해이었다. 년초 1월 24일에 Meaux Groupe(집단)의 두목격이던 Guillaume Briçonnet는 이미 타계하였고, 영국에서는 Erasmus에게는 들도 없는 친구이자 이해자이었고, 『Utopia』의 저자이면서 한편 대영제국의 재상이기도 하였던 Sir Thomas More는 Henry VIII세에 반역하였다는 이유로 하옥당하고 있었다.(1535년, More는 刑死하고 1536년에는 Erasmus도 *Lefevre d'Edaples*도 타계한다.)

이 1534년 봄에 Calvin은 프랑스 국내를 전전하고 있었는데 5월 4일에 고향 Noyon에 돌아와 그때까지의 생활비와 면학비의 재원이었던 Noyon 소회당 및 Pont d'Evêque의 사재직책을 사퇴하고 있다. 이것은 Calvin이 구교회에 대한 최초의 시위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Calvin은 Noyon을 떠나서 한동안 파리에 왔는데, 이무렵, 후일(1553)에 Calvin에 의하여 燒殺 당하게 되는 Michel Servet<sup>6)</sup>와 회견하도록 되어

4)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opus cité, p. 377.

5)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opus cité, p. 377 n. 2.

6) Servet(Michel), médecin et théologien espagnol, né en 1511, brûlé vif à Genève en 1553 à l'instigation de Calvin.

있었다. 그러나 만날 사전교섭이 잘못 되어서 이 회견의 실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전하여 진다. 이해 8월 15일, I. del Loyola는 Paris, Mont-Martre의 언덕의 성당에서, 동지들과 선서식을 갖고, 구교회의 후원(유지) 단체인 Compagne de Jesus(예스스회)의 최초의 초석을 설치 하였던 일을 함께 생각하여 볼때 이 1534년이라는 해의 험악함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시기까지의 Calvin은 Seneca의 『관용에 관하여』교정 주해에서 볼 수 있듯이 구교회 측으로부터의 유마니스트 몇 신교도 탄압에 대하여 『관용』을 용인하는 젊은 유마니스트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N. Cop 사건<sup>7)</sup> 이후 Noyon에서 직책을 사퇴할 무렵부터 Calvin은 급속하게 구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여 머지 않아 구교회와 격돌하여 더구나 자기 이상의 달성을 위해서는 불관용이라고 욱먹더라도 이를 달게 받으며, 자기의 이상의 진행을 저해하는 자는 누가 되더라도 이것을 『이단자』로서 고발하는 냉엄한 종교 개혁자로서의 길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게 된다. 모든것이 고지식한 성격에 의함이라고 말하면 그만 이겠지만, 적어도 Calvin의 경우—그리고 같은 일이 1519년의 Martin·Luther의 경우<sup>8)</sup>에서도 나타났었지만—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 그가 유마니스트로서 인고할 것에 견디어 내지 못하게 되어, 마치도 『하늘이 내린 사명』에 의하여 쫓기듯 엄한 개혁 행동의 세계에 뛰어들어 갔었던 도정이 눈에 보인듯 하다. 일체를 당사자의 성것 탓으로 귀결 시키는 것이 좀 지나치다고 할때, 같은 뜻으로 일체의 책임을 사회의 동향에 떠맡기는 것도 정당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Calvin est admirable quand il quitte son pays avec Louis du Jillet Pour cause de religion;il le sera déjà *beaucoup moins* quand il s'emportera contre ce même ami, coupable seulement de ne pas approuver l'excommunié d'hier si pressé d'excommunier à son tour ses adversaires<sup>10)</sup>.....

Calvin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Louis du Tillet와 함께 고국을 떠났을때, 그는 홀

7) Nicolas Cop(Paris 대학 총장) 연설에 대하여(Parlement de Paris) 사상조사 N. Cop, Basel에 도망.

8) M. Luther, 1519년에 Karl von Miltitz 중개로, 교회에 대하여 반역의 뜻없음을 언명 했으나 Dominico회의 한 수도사의 책동으로, 일체의 화합 기도가 파기됨(H. Hauser et A. Renaudetopus cité p. 174.

9) Louis du Tillet, Calvin 외 제1차 Genève에서의(1536~38) 급진적 개혁 운동에 반대하여 헤어짐. J. Viénot : Opus cité, pp. 189-190.

를하다. 그러나 어제 파문당한 인간(Calvin)이, 이번에는 자신의 논적들을 제빠르게 (황급히) 파문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땅 하다고) 시인하지 아니 하였다는 정도의 죄<sup>9)</sup>로서, 이 친구(Du Tillet)에 대하여 격노하게 된 Calvin은 이미 다분히 훌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A. Fabre-Lorsag의 언급은 어느 시점까지 유마니스트로서 행동하였던 Calvin의 인고의 모습과 유마니즘을 버리고 떠나갔던 Calvin의 처참한 모습과를 매우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I. Calvin의 Conversio subitio

Calvin의 이른바 『갑작스런 전향』(개종;개심;회개;전신)이 몇년 경에 이루어졌는지, 옛부터 논의는 다양하다.<sup>11)</sup>

말년에 Strasbourg에서 유마니스트이던 추기경 Jacques Sadolet(gacopo sadoletto) (1476-1547) 앞으로 보낸 서간<sup>12)</sup>을 보면, 년대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Calvin은 청년기에 종교개혁 사상의 유혹을 받은바 있었지만 카톨릭 교회에 대한 畏敬의 일념으로 이 유혹에는 과감하게 당해낸 바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훨씬 이후 Genève의 왕자가 된 Calvin은 1557년에 그의 『詩篇 註解』 Commentaires sur les Psaumes에 첨부한 서문에서는 Sadolet에 보낸 서간보다도 훨씬 년대 시기가 추정 가능한 서술 방법으로 자기가 개종의 길을 걸어온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물론, 몇년경이라고 말할 정도 정확한 결론은 추출해 낼 수는 없으나, 대체로 1534년에 프랑스를 떠나서 Basel로 향하기 앞 시점인 1533년 부터 1534년 사이에 그의 Conversio subitio의 시기를 구하면 적절 하다 할 수 있다. 그가 Du Tillet와 함께 프랑스를 떠난 시기가 1534년 가을이나 겨울로 사료되기에 이 망명을 결정적으로 만든 중대한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 중대사건의 일은 후술 하기로 하고, 전기 『시편 주해』의 서문 중에서 Calvin의 전신(개종)에 관한 부분만 보기로 한다.

10) A. Favre-Dorsaz : Opus cité, p. 124.

11) Fr. Wendel : Opus cité, p. 20, n. 67.

Jacques Pannier : Recherches sur l'évolution religieuse de Calvin jusqu'à sa conversion, Alcan, 1924.

12) Chanoine Cristianini : Opus cité, pp. 43-44

Fr. Wendel : Opus cité p. 21.

…… Comme ainsi soit que je fusse si obstinément adonné aux superstition de la papauté qu'il était bien malaisé qu'on me pût tirer de ce bourbier si profond, par une conversion subite il dompta et rangea à docilité mon coeur, lequel eu égard à l'âge, était par trop endurci en telles choses. ayant donc reçu quelque goût et connaissance de la vraie piété, je fus incontinent enflambé d'un si grand désir de profiter qu'encore que je ne quittasse pas du tout les autres études, je m'y employais toutefois plus lâchement. or je fus tout ébahi que, devant que l'an passât, tous ceux qui avaient quelque désir de la pure doctrine se rangeaient à moi pour apprendre, combien que je ne fisse quasi que commencer moi-même. De mon Côté, d'autant qu'étant d'un naturel un peu sauvage et honteux, j'ai toujours aimé recoin et tranquillité, je commençai à chercher quelque cachette et moyen de me retire des gens; mais tant s'en faut que je vinssi à bout de mon désir qu'au contraire toutes retraites et lieux à l'écart m'étaient comme écoles publiques. Bref, cependant que j'avais toujours ce but de vivre en privé sans être connu. Dieu m'a tellement promené et fait tourner par divers changements, que toutefois il ne m'a jamais laissé de repos en lieu quelconque jusques à ce que, malgré mon naturel, il m'a produit en lumière et fait venir en jeu, comme on dit. Et de fait, laissant le pays de France (en 1534), je m'en vins en Allemagne de propos délibéré, afin que là je pusse vivre à recoin en quelque coin inconnu, comme j'avais toujours désiré<sup>13)</sup> ……

「나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미신에 실로 완고하리만큼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흙늪 속에서 건져져 나올 수 있거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주님은 *Conversio subito*에 의하여 나이에 비하면 이런 일에 지나칠 정도로 고집스러웠던 내 마음을 꺾어서 암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 일단 참다운 신앙을 약간 맛보게 되고 얼마만큼을 알게 되자 나는 금방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매우 커다란 욕망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밖의 모든 연구를 일체 중지 해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전처럼 힘드려 하지 않게 되버렸다. 그런데 그해도 지나가 버리기 전에 내가 겨우 제발로 걷기 시작하였음에 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순한 교리를 갈망하고 있었던

13) Chanoine Cristiani : Opus cité, pp. 47-48.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와서 그것을 배우려 하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로 말하자면 천성이 약간 사람을 싫어하고 고독을 즐기는 편이며 수줍어 하는 성품이어서 항상 혼자서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 있을 은둔처라든지 방법등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 지기는 커녕 역으로 어데에 숨어도 어디가서 잠적하여도 그곳이 모두가 모이는 학교로 변모해 버리는 것이었다.

요컨대 내가 항상 남몰래 혼자 숨어서 살고 싶어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밖으로 끄집어 내서 여러가지 색다른 일을 시키며 빙빙 돌며 잠시도 쉴 틈없이 만드셨는데 마침내는 내 성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밝은 세상으로 내보냄으로서 이른바 한판 승부를 치르도록 시키셨다. 그리고 사실 1534년에 프랑스를 떠나 숙고한 끝에 독일 스위스의 Basel에 와버렸는데 이것은 언제나 바라고 있었던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하였던 것이다.

1557년에 적은 문장이어서 다소 자신만만하고 자기 수도의 모습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의 앞길의 험준함을 묘사하고 있으나, 문제를 *Conversio*에 한정하면 프랑스를 탈출하기 이전에 벌써 Calvin은 굳게 마음을 정한 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1534년 5월에 교회의 직책을 사퇴할 때 이 결의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Calvin은 출발 하였는데, 1536에 그의 대저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를 발표하기에 앞서 흡사 신천지를 앞에 두고 여로에 나선 결의에 넘치는 문장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1535년에 스위스의 Neuchâtel에서 출판되었던 통칭 Olivétan(*Pierre Robest 1506-1538*)의 성서(회람어로부터 번역된 불어판 신약)에 부친 calvin의 서문<sup>14)</sup>이다. 아직 뚜렷하게 구교회에 대한 격렬한 공격의 언사는 보이지 않고, 차라리 그때부터 태어나려고 하는 신교회 즉 Calvinisme의 꿈을 묘사한 문장이었다. 정열에 충만하고 16세기조의 웅변에 시종하며 곳에 따라서는 Rabelais식의 리듬마저 느끼게 되는 문장이다. 이 서문 가운데 특별히 강조된 부분을 A. Favre-Dorsaz가 철자를 현대적으로 바꾸어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기없이 옮긴다.

Tout ce qui se pourrait penser ou désirer de bien est trouvé en ce seul Jésus-Christ. Car il s'est humilié pour nous exalter, il s'est asservi pour nous affranchir,

14) J. Viénot : Opus cité, p. 199, n. 1.

il s'est appauvri pour nous enrichir, il a été vendu pour nous racheter, captif pour nous délivrer, condamné pour nous absoudre, il a été fait malédiction pour notre bénédiction, oblation de péché pour notre justice, il a été défiguré pour nous figurer. il est mort pour notre vie. Tellement que par lui rudesse est adoucie, courroux apaisé, ténèbres éclaircies, injustice justifiée, faiblesse vertueuse, déconfort consolé, péché empêché, mépris méprisé, crainte assurée, dette quittée, labeur allégé, tristesse réjouie, malheur bienheureux, difficulté facile, désordre ordonné, division unie, ignominie anoblée, rébellion assujétie, menace menacée, embûche débuchée, assaux assaillis, effort efforcé, combat combattu, guerre guerroyée, vengeance vengée, tourment tourmenté, damnation damnée, abîme abîmé, enfer enferré, mort morte, mortalité immortelle.<sup>15)</sup>

『생각해낼 수 있는 또는 원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만 이 예수·크리스트의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다. 왜냐면 주님은 우리들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비아(굴종)하였고,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스스로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였으며, 우리의 부유를 위하여 스스로의 가난을 감수하였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포로의 신분도 마다 하지 안하였으며 우리의 사면을 위하여 복역하고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저주 받았고, 우리의 정의를 위하여는 스스로를 헌신하여 죄를 떠맡고 우리 모습을 제대로 만들기 위하여는 스스로를 추한 모양으로 만들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타계 하셨다. 그렇게 주님께 의하여 난폭은 유화로 변하고, 노여움은 진정되며, 어둠이 밝아지고, 부정이 올바르게 고쳐지고, 연약함이 덕스러워지며, 불행은 위로 받고, 죄는 자제되며, 경멸(모욕)은 삼가하며, 무서움이 안도로 빛(부채)은 없어지고 노고는 경감되어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곤란은 용이, 혼란은 질서로, 분열이 통일로, 치욕이 고귀로 되며, 반역은 통치되고, 위협은 협박당하게 되고, 함정은 밝게 도려나고, 습격은 역습 당하고, 노력에는 힘의 도움이 따르고, 투쟁은 쟁취되고, 전란은 진화되고 복수는 끝내 수행되고, 고통은 괴로워하며, 단죄는 지옥에 떨어지고, 심연은 깊숙히 빠져 들어가며, 지옥은 쇠사슬에 묶이고, 죽음은 없어졌고, 죽어야 할 운명은 영구 불멸이다.』

15) A. Favre-Dorsaz : Opus cité, p. 125(Jean Calvin : Epître à tous amateurs de jésus-christ, avec Introduction par J. Pannier.



Olivétan 자신이 적은 서문도 그중제인 Calvin의 전기한 문장과 같이 억양이 높은 것인데, 양자의 문체 기법이 흡사하기 때문에 Calvin의 문체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에 인용한다.

En avant donc pauvre petite Eglise qui es encore en état de chambrière sous les furieuses trognes et magistrales menaces de tant de maîtres renfrognés et rébarbatifs; va décrotter tes haillons tout poudreux et terreux d'avoir couru, viné et tracassé par le marché fangeux des vaines traditions; va laver tes mains toutes sales d'avoir fait l'œuvre servile d'iniquité; va nettoyer les yeux tout chassieux de superstitions et d'hypocrisie ..... Viens hardiment avec les plus braves et mignons de la cour, tous faits exécution pour Christ, non pour leurs méfaits; desquels titres sont ceux-ci à savoir: injuriés, blâmés, Chassés, Décriés, Désavoués, Abandonnés, Excommuniés, Anathématisés, Confisqués, Emprisonnés, géhennés, Bannis, Echellés, Mitrés, Décrachés, Chaffaudes, Essoreilles, Tenailles, Flétris, Tires, Trafnes, gurillés, Râtis, Lapidés, Brûlés, Noyés, Décapités, Démembérés et autres semblables titres glorieux et magnifiques du royaume des cieux.<sup>16)</sup>

### III. Affair des Placards와 Calvin의 피신(망명)

Calvin은 1534년 가을 또는 겨울에 프랑스를 도망치듯 출국하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Affaire des placards이다.

Francois I 세는 1516년 이래, 스페인왕 Charles I 세(Charles I =그후의 Karl V)와 신성 로마 황제의 자리를 다투고 있었는데, 프랑스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파리 대학 및 파리 최고 법원 Parlement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 국내의 교회의 재정·인사를 왕권밑에 둘 것을 결정한 Concordat(정교 조약)를 1518년 3월 22일에 발표하였다. 그 결과 파리에 한때 불온한 공기가 돌게 되었고, 그후 왕권과 파리 대학 및 최고 법원과의 대립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왕과 그 측근의 사람들은 Erasmus를 찬양하고 Lefèvre를 비호하는 등 친 유마니즘적 경향을 나타내고는 있었다.

François I 세는 교황에게는 이단자 박멸의 약속을 하고 독일 신교 제후와는 친교를 맺는다는 기묘한 정책을 취하고, 그것이 대내적으로는 소신이 없이 좌우로 흔들리는 정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534년 10월 17-18일 파리를 위시하여 프랑스 각지의 제소 도처에, 또 당시 Amboise 이궁에 머물고 있던 François I 세의 침실 문이나 왕의 소지품 속에 이르기까지 구교의 미사 성재를 마도 하고, 교황이나 교회인들을 위선자로 호칭한 『격문』이 살포되어 있었다. 이 사건이 보통 Affaire des Placards로 불리우는데 이 사건을 이끈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François I 세의 왕실부 약제사의 하인인 Ferret는 아마도 파리의 동지들의 뜻에 의하여 스위스 Neuchâtel까지 가서 프랑스 종교 개혁파의 발전에 필요한 신교 교리의 요약을 찾고 있었는데 이 Ferret가 갖고 귀국한 :

Articles véritables sur les horribles, grands et importables(=insupportables) abus de la Messe papale : inventee directement contre la sainte Cene de Jesus Christ

『예스스·크리스트의 성만찬에 직접 거역하여 발명된 교황의 미사의 가공하고 막대하며 또 참기 힘든 폐해에 관한 진실된 여러개조(條)』

라고 하는 격문이 살포<sup>17)</sup>된 것 같다. 이 격문의 기초자는 오래동안 구구하였는데, 실은 1531년에 Lyon으로부터 Neuchâtel에 도망갔던 광신적인 신교도인 Antoine Marcourt인듯 하다.<sup>18)</sup>

이 격문의 전모는 문헌으로서 기록되어 있는데<sup>19)</sup> 여기에 재록함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공식적이고 전투적인 반 구교회적 언사로 채워져 있다.

『파리 일 시민의 일기』에 의하면 「그 격문을 접부한 범인 또는 범인들을 확실히 적발하여 이를 통지하는 자에게는 최고 법원으로부터 100 écus가 교부될 것이라고 고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범인을 은의하는 자는

17) J.-D. Benoît : Opus cité. p. 46.

18) E. Lavissee : Histoire de France, t. V. Hachette. 1911, p. 376.

19) J.-D. Benoît : Opus cité, pp. 46-47

E. Lavissee : Opus cité pp. 376-377.

화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사정은 명백히 들어나 곧 몇 사람의 범인이 체포되어 수인으로서 Châtelet 감옥에 연행되었다.»<sup>20)</sup>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일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몇 사람들의 범인이 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당초의 발안자, 기획자 뿐만 아니라 각지에 이런 격문을 동시에 살포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낸 인간도 판명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체포된 범인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범인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에 구두 가게집 자식으로 전신 불수의 Barthélemy Mollon이라는 청년이 Saint-gehan묘지에서 불에 태워진 것을 시초로 하여<sup>21)</sup> 1535년에 이르기까지 몇십명의 사람들이 화형대에 올려져 있고 수백명이나 체포되어 있었다.<sup>22)</sup>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의 프랑스의 이른바 「레지스탕스」운동의 경우와 같이 公憤(공분)이나 사 怨(원)등에 의한 민중의 비인간적인 폭동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탄압을 더욱 더 유발시키게 마련이다. 소리가 큰 사람이나 배짱좋은 인간이 이러한 시기에는 「불난집 도둑」으로서 제일 신나게 활약하는 듯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진상은 분명치 않지만 1534년-1535년 간에 박해 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죄없이 벌받은 사람들도 꽤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앞서 말한 Barthélemy Mollon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Henri Guy의 저서에는 이러한 희생자들의 처참한 「순교자 열전」이라고나 할 자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Guy는 이들 각 계급에 걸치는 「순교자」중에 artisans(직공)과 geunes fils(젊은이)들이 많이 들어 있으며, 이들이 「후회하지도 않으며, 「완고한 태도로 죽었다」라고 기록한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의 필자의 표현을 감동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또 그 일기에 의하면 Paulus III세 교황은 1535년 6월에 「생(生) 사람을 태(燒)우는 것은 잔인한 살인 방법」으로서 Francois I 세에게 탄압 박해의 완화를 요청하고 있을 정도<sup>23)</sup>로 그때의 보복은 대규모의 것이었다.

이 Affaire des Placards는 1528년 6월 2일과 1530년 5월 21일에 두번이나 발생한 파리에서의 성모상 훼손(毀損)사건 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Francois I 세 국왕은 왕비를 비롯하여 조정의 사람들과 같이 1535년 1월 21일(목)에 벌어진 성대한 속죄행렬에 참가하였다. 탈모한 왕은 도보로 불부친 초 한자루를 손에 들고 행렬의

20) Le Jourral d'un Bourgeois de Paris, Opus cité, p. 358.

21) Le Jourral d'un Bourgeois de Paris, Opus cité, p. 379.

22) E. Lavissee : Opus cité, pp. 377-378.

23)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Opus cité, pp. 359-360.

한 사람으로 끼어 있었다.<sup>24)</sup> 「또 다시 1월에는 35명의 Luther 교도들이 화형대에서 불타 죽었고, 300명이나 체포되었다고 소문이 돌았다.

En janvier encore trente-Cinaj luthérien furent brûlés; on parlait de trois cents arrestations : “Dedans Paris on ne veoit que potences dressées en divers lieux, ce qui espouvoit fort le peuple du dict Paris et ceulx des aultres villes qui veoyent les dictes potences et exécutions”.<sup>25)</sup>

『파리 시내에서는 여러군데에 세워 놓은 교수대가 눈에 띄일 뿐이고 파리 시민들이나 이런 교수대와 실제 형집행 장면을 목격한 타 도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격문 사건의 여파는 심각하였다.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에 의하면 1535년 1월 25일 이미 도망간 73인<sup>26)</sup>의 「이단자」들에 대하여 즉각 자수하지 않을 경우 추방형과 재산 몰수형에 처할 것을 포고하고 있는데 이 73인 중에는 Pierre caroli 시인 clement Marot(1496. 11/23-1544. 9/12)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sup>27)</sup>

이 1534년에 『제1서 가르강튀아』를 출판한 Francois Rabelais도 이 사건의 즉후에 모습을 감추고 있다. 1534년 10월에 Calvin이 체제한 장소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가 1532년 파리 체재시에 매우 신세를 진 바 있었던 파리 Saint-Martin가에서 Pelligan이라는 옥호를 걸어두고 라사를 팔고 있던 50대의 부유한 상인 Etienne de la Forge가 신교도에게 호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1535년 2월 15일에 Saint-Jehan 묘지에서 화형으로 불타 죽은<sup>28)</sup> 보고를, 틀림없이 입수하였을 것이고, 그외의 희생자에 관한 정보도 들었을 것이 틀림 없음으로 이 「격문 사건」후에 많은 망명객과 같이 Calvin이 Du Tillet와 함께 프랑스를 떠났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매우 커다란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끼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사건 발생

24)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Opus cité, p. 359.

25) E. Lavissee, Opus cité, t. V. p. 377.

26) E. Lavissee에 의하면 52인으로 되어있다(Opus cité, p. 377).

27)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Opus cité, p. 381.

28)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Opus cité, pp. 382-383.

후의 무수한 살상의 기록 이외에도 예컨대 1534년 12월 9일에 François I 세가 파리 최고 법원의 협조(즉 탄압)에 깊은 만족의 뜻을 표명하거나 12월 21일에 왕명에 의하여 최고 법원내에 12명으로 구성되는 이단 신문회를 설치한다거나 1535년 1월 29에 Luther와 교도를 비호 은익함을 언급하는 칙령을 발표하거나 또는 1535년 1월 13일에는 왕명으로 국내에서의 일체의 출판을 일시 금지하는 법령안이 제출되었던 일 등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 시기에 유마니스트들의 기원이 담겨져 있는 Collège de France 「왕립 교수단」의 상황은 경제적 경영적 면에서 허다한 곤란도 있고 파리대학 신학부로 부터의 거둬되는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저럭 무사히 존속하여 항상 François I 세 및 그 측근들의 비호 아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프랑스·유마니즘의 모태일 것을 그만 두지는 아니한 듯 하다. 그러나 「격문 사건」이, 이 「왕립 교수단」의 생명을 하마트면 빼앗어 가버릴 정도로 심각한 파문을 던졌다는 것 또한 사실인 듯 하다.<sup>29)</sup>

#### IV.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

##### 기독교 교정(敎程)과 Basel시절

Calvin은 이러한 시기에 조국 프랑스를 탈출하여 1535년 1월에 Basel에 나타나서 망명중인 Nicolas Cop<sup>7)</sup>와 재회의 기회를 갖는다. 파리 대학 총장이었던 Cop는 1533년 11월 1일에 파리의 Mathurins교회에서 신학년초 항예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은 복음주의적 은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사상적이고 다분히 Luther 냄새가 풍긴다고 하여 Parlement de Paris의 사상 조사를 받게 되어 결국 Basel로 도망가 있었다. 이때 Calvin은 Lucanius라는 익명으로 Basel시의 Saint-alban 지구 소재 Catharina Klein이라고 불리우는 귀부인 집에 하숙하고 있었다.

Calvin은 유마니스트들과 연관이 깊은 이 Basel시에 일단 안정하고 한편 전년 말부터 프랑스에서 「격문 사건」후 박해받고 속속 망명하는 사람들을 맞아, 잔혹한 형벌의 모양을 알게 된다.

이해 영국에서는 6월 22일에 John fisher가 7월 6일에는 Sin Thomas More가 각각 형(刑) 사(死)하고 있다. 영국의 친구들이 이와같이 속속 현세의 폭력에 의하여 말살되어 가는 소식을 접하면서 Desiderius Erasmus는 6월에 몹시 우울하고 상심한

29) A. Lefranc: Histoire du Collège de France, Opus cité pp. 146-149.

상태로 최후의 해를 보내기 위하여 Basel로 이주하여 왔었다. 그는 다음 해 : 1536년 7월 11-12일에 타계하였다.

유마니스트인 Lefèvre d'Étaples도 역시 153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1534-1535년 동안의 기간은 유마니스트들의 충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완고한 사람들과 유마니스트들의 권고에 자극을 받으면서도 유마니스트들의 깊은 마음속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만 열광적으로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명확한 대립을 나타내고 광신에 광신을 불관용에 불관용이 서로 맞대고 싸우는 비극의 서막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대립 항쟁은 현세의 권력자나 야심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박 받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거리 이상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생사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프랑스 16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났던 피투성이 종교 전쟁의 발단은 이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alvin은 이러한 시대의 Basel에서 1535년 8월 23일부로 Epistre au Roy 『왕에게 바치는 서간』으로 불리는 한 문장을 만들었다. 이것은 다음 1536년 3월에 출판되는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의 서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시편 주해』 서문의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Conversio subito」에 관한 Calvin의 회상문의 직후에 계속되는 문장이다.

Et de fait laissant le pays de France(en 1534), je m'en vins en Allemagne de propos délibéré, afin que là je pusse vivre à recoin en quelque coin inconnu, comme j'avais toujours désiré, Mais voici, pour ce que pendant que je demeurais à Bâle, étant là comme caché et connu de peu de gens, on brûla en France(1535) plusieurs fidièle et saint personnges, et que le bruit en étant venu aux nations étrangères, ces brûlement furent trouvés fort mauvais par une grande partie des Allemants, tellement qu'ils conçurent en dépit contre les auteurs de telle tyrannie; pour l'apaiser, on fit courir certains petits livres mal-heuroeux et pleins de mensonges, qu'on ne traitait ainsi cruellement autres qu'anabaptistes et gens séditieux, qui par leurs rêverie et fausses opinions renver-saient non seulement la religion mais aussi tout ordre politique lors, moi, voyant que ces pratiquer de Cours, par leurs deguisements, tâchaient de faine non seulement que l'indignité de cette effusion de sang innocent demeurât ensevelie par les faux blâmes et calomnie, desquelles ils charcheaient les saints mortyrs après leur mortyrs après leur mort,

mais aussi que par après il y eût moyen de procéder à toute extrémité de meurtris les pauvres fidèles, sans que personne en pût avoir compassion, il me sembla que sinon que je m'y opposasse vertueusement, en tant qu'en moi était, je ne pouvais m'excuser qu'en me taisant que je ne fusse trouvé lâche et déloyal. Et ce fut la cause qui m'incita à putlier mon Institu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35-1536), premièrement afin de répodre à ces méchants blâmes que les autres semaient, et en purger mes frères, desquels la mort était précieuse en la présence du Seigneur; puis après, afin que d'autant que les mêmes cruautés pouvaient bientôt après être exercées contre beaucoup de pauvres personnes, les nations étrangères fussent pour le moins touchées de quelque compassion et sollicitude pour iceux.<sup>30)</sup>

…… 프랑스를 떠나서 뜻을 정하여 독일에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원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눈에 띄이지 않은 한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막상 아예 숨어 살 듯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Basel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몇명의 신자나 경건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였고 그 소문이 외국 사람들에게 까지 전하여 지고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도 이런 화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 결과로 이런 폭악한 짓을 한 자들에게 원한을 갖게 되었다. 이런 원한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허위에 가득찬 못된 소책자들이 유포되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꿈과 같은 생각이나 그릇된 의견 때문에, 종교 뿐 아니라 정치·절서마저도 전복 하려던」 Anabaptistes나 반역자들 빼놓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궁정의 술책꾼들이 모르는 채 하면서 성스러운 순교자들에게 그들이 타계한 후 허위의 비난이나 고자질을 가하여 그럼으로써 그렇게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만든 괴씸한 행위를 쥐도 새도 모르게 말살 해버리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또 불쌍한 신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시킬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도 그 누구의 동정도 끌지 못하도록 꾸며 놓은 것을 보고서 나로서는 가능한 한의 일을 하여 용감하게 반대하면 예기는 다르지만 침묵하고 있어도 부정 비점이 되지 않으리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교정』을 세상에 내놓도록 나를 자극한 원인이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씨뿌려 놓은 사악한 비난에 대답하여 주님 앞에서 그 죽음이 고귀한

30) Chanoine cristiani ; Opus cité p. 48.

것이 된 형제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요 다음으로 똑같은 잔학한 일이 얼마 후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능히 가하여 질 수도 있기에 외국인들이 적어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배려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結 言

유마니즘 論議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세계 대전 후의 일이었고, 다양한 유마니즘의 定義나 유마니즘의 분류가 연구되었다. 대전 전에 있었던 논의의 연장이기도 하였지만 이른바, 서구 자유주의 국가 그룹과 전체주의(독재정치) 국가간의 대립, 자본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체제와의 대립, 원자력의 발견을 포함한 과학의 이상한 발달과 그것에 필연적으로 부수하게 되는 쪼꼭된 인간성과의 문제들이 전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심각한 과제를 수없이 제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마니즘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유마니즘에 포함된 효능이라고나 말할 수 있는 것을 각자의 입장에서 강조한 것 같다. 고전적 유마니즘, 사회주의적 유마니즘, 공산주의적 유마니즘, 실존주의적 유마니즘, 신·구 기독교적 유마니즘, 과학적 유마니즘, 몇세기 유마니즘, 전전·전후 유마니즘...등 여러가지 유마니즘의 분류가 있었는데 논자가 처하여 있는 시대적 환경·사상·직업·도덕기준...넓게는 인류학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당연히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류가 처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유마니즘이 나타내는 구체적 顯現을 통하여 일관되게 있는것, 말하자면 최대 공약수라고나 할 것을 추구·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라고 사료된다.

유마니즘에 관한 격렬한 논의 그것 자체가, 현「20세기」·미래의 「21세기」 그리고 현대 문화의 위기의 증대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 BIBLIOGRAPHIE

La Litterature Française de la Renaissance V. — L. SAULNIER Manuel de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1987 F. BRUNTIERE Manuels Bibliographiques do G. Lanson

Textes français Modernes(Didier)

Préréforme et Humanisme à Paris. Champion, 1916; Augustin Renaudet.

Humanisme médiéval et Renaissance(1929) Etienne Gilson

Essais (1580—1588) — Michel EYQUEM de MONTALGNE